

전준업의 미술 산책 '걸어다니는 미술 백과사전' 김달진

한평생 발품 팔아 중요자료 수만점 모아

세

상에는 빛을 쫓는 사람과 소금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미술계에도 이러한 세상 공식은 그대로 통한다. 빛을 쫓는 사람은 작가들이다. 반면 작가들이 빛이 되도록 밀어 주고, 밤계 빛나도록 닦아 주면서 미술계에 소금으로 남은 사람도 있다. 그

런 사람 중에 가장 넓고 든실한 소금밭을 일군 이가 김달진(53)이다.

그의 공식 명칭은 미술자료전문가이지만, 미술계의 마당발로 통한다. 작가는 물론, 평론가, 기자, 갤러리스트, 큐레이터 등 한국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유달리 수집 습관이 발달했던 그가 미술 자료에 눈을 뜨게 된 것은 고등학생 때부터라고 한다. 1972년 경복궁 향원정 뒤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던 시절 열렸던 한국근대미술 60년 전의 전시 작품과 도록에 수록된 도판 작품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면서부터, 그 이후 그는 작가 자료에 오류와 허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됐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러한 기초 자료가 모여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달진은 정확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게 된 것이다.

낡은 가방 속에 가득 담긴 미술 자료들

1978년 월간 '전시계' 기사를 시작으로 2001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가나아트센터에 몸담으면서 미술 자료 업무를 맡는다. 이 시절 내내 그는 미술계에서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발품을 팔아 자료를 모았다.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착실한 공무원 모습으로 금요일마다 전시장을 누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모은 미술 자료는 작가 화집 6500여 권, 정기 간행물 2500여 권, 미술학회지 200여 권, 논문집 150여 권, 팸플릿 1만여 점, 작가별 개인 자료 파일 280여 권이며, 여기에 일간지 미술 기사까지 합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30년간 착실하게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한 미술 자료 전문가 김달진.

치면 수만 점에 이른다.

이 중에는 미술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도 많다. 자랑할만한 것으로는 독일 미술사학자 안드레 에카르트가 쓴 회귀 고서에 속하는 '조선미술사' 영문 초판본(1929년 발행), 한국 근대 미술의 대표적 기초 자료인 '근역서화정'(오세창 저·1928년 발행), 우리 나라 최초 원색 도판 화집인 '오지호, 김주경 2인 화집'(1938년 발행), 이중섭의 유일한 개인전(1955년) 팸플릿 등.

이를 바탕으로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미술 전문 정보지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하면서부터.

미술정보21 '서울아트가이드' 발행

처음에는 8쪽짜리 접이식 가이드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00여 쪽에 달하는 미술 전문 정보지로 몸집이 불어났다. 그런 만큼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이는 미술계 광고 효과 1순위로 '서울아트가이드'가 꼽히는 것이나 수많은 작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성공은 초심을 잃기 쉬운 것이 우리네 세태다. 김달진에게도 이런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본격 미술잡지로서의 도약을 부추기는 안팎의 충심어린 제언(?)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김달진은 자료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았기에 남의 그릇을 넘보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을 더욱 알차게 채우는 일에 힘을 쏟았다.

정리못한 4.5톤 자료 고향보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 활용 방식을 개발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미술 정보를 제공하는 '달진닷컴'과 미술 전문 인터넷 서점인 '달진 북'이 그것.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외국인을 위해 '아트맵'을 격월로 펴내고 있다.

김달진에게 30여 년 수집의 결실이 꽃으로 피어난 것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개관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미술 자료 전문 박물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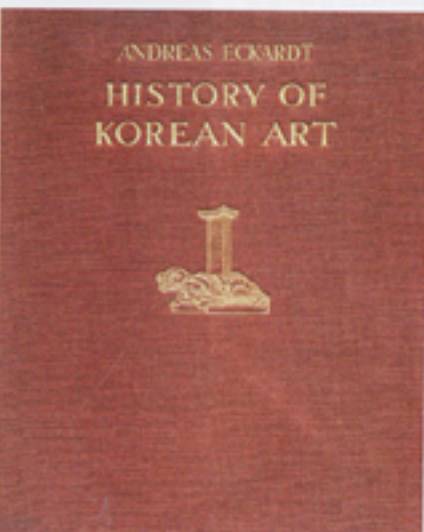


1938년 발행된 '오지호·김주경 2인 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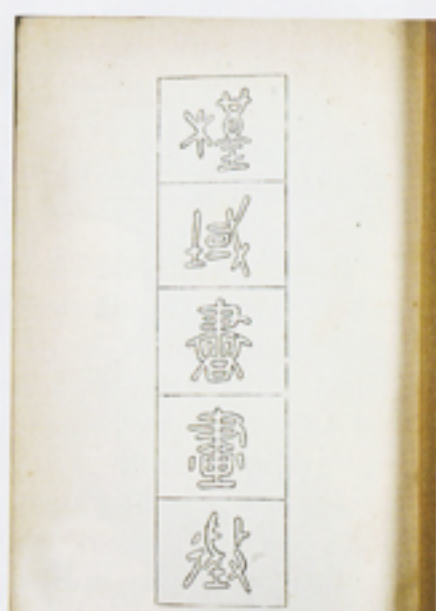
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실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 의미를 담아내는 행사가 '한국미술정기간행물전'(10월23일~내년 1월31일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다.

저널리즘과 미술전문지를 통해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이 전시는 희귀성과 역사적 의미가 깊은 미술 자료들이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

김달진이라는 수집벽 많은 한 개인이 맨손으로 일궈낸 이 일은 사실은 국가 기관이나



독일 미술사학자 안드레 에카르트가 쓴 '조선미술사' 영문 초판본·1929년 발행.



1928년 발행된 오세창의 '근역서화정'

대학 혹은 기업미술관 같은 데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의 수준이다. 개인의 청빈과 검소함이 바탕이 되어 이룬 성과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료의 양과 질에 비해 공간의 협소함과 초라함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4.5톤 분량의 미술 자료가 그의 고향집인 옥천에 보관돼있다. 김달진은 이를 자신 능력의 한계라고 안타까워 한다.

그동안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 '갈아다시는 미술백과사전'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내심 무관심했던 미술인들이 더 많았다.

30년간 변함없는 성실함

지금은 직원을 9명이나 지느린 어엿한 모습을 갖추고, 영향력 있는 태세로 자리잡았다. 그런데도 김달진은 30여 년 전의 모습으로 인사들을 견고 있다. 어깨에 낀 가방을 메고 반듯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한 원칙주의자 공무원의 모습으로 전시장에 나타나 정중하고도 수줍은 태도로 자료를 요청한다.

필자가 1979년 아랍에미리트 서울 해화동 로터리 부근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모습이 다. 